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인류에게 드리는 승리절 메시지

# 당신도 육신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부처님)이 될 수 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각기 그 나름대로 행복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명예, 돈, 지위, 자유, 평화, 보람 등을 정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까? 물론 순간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찰나적인 것이므로 허무하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마치 저 산 너머에 행복의 무지개가 걸려 있어 그 산을 넘어갔더니 또 다른 산 위에 무지개가 서 있는 것처럼.

이처럼 영원한 행복은 자신의 밖에서 찾으려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행복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지 결코 바깥에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대학자 및 성인들은 마치 행복이 있기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왔던 것이다.

육신을 입은 채로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반면 승리제단의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인간의 육체란 불행의 옷이자 고통의 골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극복하지 않는 한 행복은 요원한 것이며,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었을 때에는 영원



승리한 이긴자에게는 이슬(우측 곡선형태의 빛)이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한다(호세아 14:5)

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원래의 상태가 되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으로 되돌아가야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하여튼 유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도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 행복을 찾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존재(하나님, 부처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곳을 무릉도원, 유토피아, 낙원, 천국,

극락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찾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사람 가운데 행복을 얻은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그분은 바로 조희성님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10월 15일 그분은 사망 권세 잡은 마귀(나라는 의식)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다. 앞에서 인간의 육체라는 유한성을 극복해야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바 바로 조희성님은 인간의 육신을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 증거는 조희성님께서는 분신(分身), 즉 자신의 몸을 셀 수 없을 만큼 쪼개되

쪼개진 그 분신은 원체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인간이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쾌락을 누리게 되며, 우주 어디든지 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며,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 등 모든 아픔은 간 곳이 없어지고, 영원무궁토록 지고(至高)의 기쁨 속에서 산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부처님)인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님은 이러한 경지에 계신 것이다.

승리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자

따라서 승리절이란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불멸의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날이며, 죄인에 불과했던 인간이 죄를 벗고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알려준 날이며, 구속과 불안 속에 헤매던 인간이 자유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날이며, 슬픔과 탄식 속에서 괴로워하던 인간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위대한 승리의 날인 것이다.

전 세계 만민들은 누구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조희성 구세주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며, 어서 빨리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승리제단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김충천 기자

### 9월 본부제단 지역성적발표



### 5지역 삼관왕, 신순이 지회장 활약 돋보여

본부제단 9월 성적이 6일 구역장 전체회의에서 발표되었다. 1등을 차지한 5지역에 이어 2등은 4지역, 3등은 1지역이 차지했다. 5지역은 신순이 권사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4지역은 김정순 승사의 열성이 눈에 띄었고, 1지역은 이숙정 권사와 김금순 권사, 김민숙 집사 등 여럿이 힘을 보탰다.

윤봉수 회장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을 받는 것은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을 열심히 했다는 외형적 증거이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마음까지도 세밀히 점수를 매기실 것이다. 그날에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

실 때 분명히 오늘 발표한 성적도 포함될 것이다. 전성도들은 10월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지역 2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지역 3등, 1지역(지역장 김중만, 지회장 박경옥)

구역 1등, 신순이 45구역장  
구역 2등, 김정순 38구역장  
구역 3등, 김갑용 26구역장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개인 2등, 김정순 승사  
개인 3등, 이숙정 권사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6)

## 승리절(勝利節)을 경축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마귀 육에 갇혔던 온 우주가 6,000년 만에 육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6,000년 만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니, 온 우주가 고통과 사망이 다시없는 승리의 개가를 영원토록 부르게 된 것입니다.

1980년 10월 15일 이 사람이 밀실에 서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그날 지계를 지고 산열 가니, 일제히 나무와 풀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

다. 절을 한 다음에 춤을 추는데, 여러 분들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굵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고 도로 서는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이 의심을 했습니

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이 기뻐 날뛰며 춤추는 기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도의 길

### 남들이 놀 때 일하라

자유율법을 지키려면 반대생활을 해야 한다. 반대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즉 하기 싫으면 해야 되고,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다. 반대생활은 영생의 도를 닦는 구도자들의 수행법이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구도자들이 호흡법이다 관법(觀法)이다 하여 득도(得道)를 위하여 나름 정진했지만 자신을 완전히 이긴 자는 출현하지 못했다. 승리제단에서는 단언하고 있다.

극기승자(克己勝者)가 한 사람이더라도 나왔다면 그는 영생체로 변화가 되었을 것이며, 영생체가 되는 수행법을 인류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완성의 이긴 자가 출현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조희성 이긴자께서는 반대생활을 통하여 완성의 이긴자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반대생활만이 유일한 도통

법임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보광하는 그날까지도 반대생활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다.

이긴자께서는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 원수 마귀가 한 마리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마귀가 준동하는 날이면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 추석이나 설날같은 명절 때면 죽은 사람들의 영이 날뛰는 때이므로 그 마귀를 죽이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을 하셨다. 완전히 마귀를 발등살할 때까지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이긴자의 수고를 생각할 때 진정한 승리제단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추석을 비롯한 연휴를 보내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자. 평상시와 다르게 쉬면서 보았다면 회개하자. 조희성 이긴자를 닮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경축

# 승리절

제 35회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께서 승리자가 되신 날,  
인간들은 그 누구도 몰랐으나  
산천초목은 구세주의 출현을  
알고 구세주께 환희의 춤을  
추며 경배를 올렸습니다